

써온 한글설명 PDF파일

Portraits in Rhythm

(한글번역본)

서울타악기

1

1번곡의 주제가 제시된 처음 8마디는 장식음이 첨가된 형태로 두번째 재현이 이루어 진다.

(6째단 둘째마디)이 악구를 연주할 때는 악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여 연주한다.

2

2번곡의 연습은 처음에는 1마디랑 3박자로 연습하고 나중에는 마디당 1박자로 해야한다.

3번째 단과 4번째 단에 있는 forte-piano(fp)는 강한 액센트처럼 소리내야하고, 반면에 그 마디의 나머지 음표들은 극히 부드러워야 한다.

3.

3번째의 곡은 단위로서 나뉘어진 곡으로서 마디는 첫째 단부터 셋째 단까지 강조된 셈여림표를 3마디 단위로 주목하여 연습한다.

모든 5 stroke를 갯수를 정확히 연주한다.

4.

4번째 곡의 연습은 마디당 2박자의 느낌을 가지고 연주해야 하며, 셈여림표의 변화에는 매우 크거나 매우 부드럽게 표현하는 과장성을 가지고 연주해야한다.

마지막 5마디는 종결부이다.

5.

이 곡 처음에는 7번째와 8번째 단에 있는 3잇단 4분 음표가 문제시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

- 1) 손으로는 3잇단 4분음표를 직접치고, 발로는 1박자로 간주한다.
- 2) 장식음이 없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3잇단 16분 음표와 8분 음표를 정확하게 연습한다.
-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곡을 연습한다.

6.

6번째 곡의 특징은 셈여림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며, 크라센도는 약간 과장되게 한다.

7.

7번째 곡의 주제는 처음 5마디에 나타나 있는데, 2마디는 “질문”이고, 3마디는 “대답”인 형태로서, 셈여림표에 의해 잘 나타나 있다.

3번째 단에 적용된 2번째 단 6째 마디부터 3째 단 1마디의 대답의 변형은 3번째 단 2째마디 부터 이다.

8.

8번째 곡의 특성은 변박자의 형태이다. 7/8박자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4/8 + 3/8$ 과 또는 $3/8 + 4/8$ 로 된다. (물론, 각 각은 이 부분의 1과 2마디를 차지한다.) 물론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으며, 이 연습에서는 이것들 중 2개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4째단 5째마디는 $2/8 + 2/8 + 2/8 + 1/8$ 과 같으며, 8째단 2째마디는 $3/8 + 3/8 + 1/8$ 과 같은 형태이다.

9.

9번째 곡이 연습은 마디당 1박자로 연주해야 하며, 모든 roll은 갯수가 정확해야 한다. 이번 연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짧고 날카로운 음표라고 불리워지는 스타카토는 스네어 드럼으로 연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효과는 스틱에 손가락으로 별도기 입력을 주거나 드럼을 치자마자 스틱을 떼는 손목주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10.

10번째 곡은 마디당 3박자이며, 극히 주의할 것은 점 16분음표, 32분 음표의 리듬들은 깨끗하게 (리듬이 살아나도록) 연주되어야 한다.

11.

이 부분은 템포 때문에 마디당 12박자로 연주한다. 7째줄 첫째 마디에서의 roll  는 음표를 붙여선 안 된다.

12.

이 곡은 박자를 변화하게 하는 연습과정이다.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한 길이의 변화에 있어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8분음표는 항상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해야 한다.(4번째 마디 위에 지적하듯이)

13.

이 곡 첫째 단 도입부(서주)는 넓고 천천히 연주해야 한다. 표현방법과 템포 표시에서 지적했듯이 "Alegro con brio"는 자연히 빠르고 밝아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의 끝에 있는 ritardando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Trio는 월츠의 빠르기로 시작하되, 뒤에서 나오는 "largo"는 느리고 무겁게 연주해야 한다.

14.

14번째 곡은 7마디로 묶인 곡이고 반복된 액센트를 사용했다.

6번째 단에서의 모든 roll은 정확히 같아야 하나, 그럼에도 3/8박자로부터 2/8박자로 변한다. 리듬의 변화는 발로 두드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각 마디의 첫 번째 박자에서 발생한다.

15.

15번째 곡의 연습은 마디당 2count로 연주한다. 묶어진 roll과 안 묶여진 roll은 구별하고, 반면에 스타카토 roll은 스틱을 가볍게 눌러서 연주한다.

16.

16번째의 연습곡은 라벨의 불레로에 등장하는 유명한 스네어 드럼 솔로의 스타일을 응용한 것이다. 도입부에서는 원곡의 솔로를 그대로 제시하며 이것은 곡 중에서 총 23번 연주된다. 그러나 솔로에 담겨진 음표들은 각기 다른 몇가지 박자 변화를 가지며, 또한 그에 따른 변화된 느낌을 갖는다. 그것은 발 박자의 다채로운 배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음표들은 6째단 마지막 마디 5/16박자가 가장 쉽게 연주 되어진다.) 덧붙여 지속적인 크레센도를 주의 하며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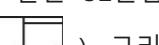
17.

이 연습은 처음 4마디에서 볼 수 있듯이 16분음표가 계속된다. 셋째 단과 네째 단에 있는 roll의 위에 표시된 스타카토는 짓뭉개진 roll의 표시가 아니라 차라리 각 roll마다 가볍게 눌러 주는것을 말한다. 마지막 마디의 첫 박자에 있는 페르마타는 계속되는 roll의 길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타악인의 음악적인 신중한 분별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18.

첫째 마디의 roll은 이어지는 8분음표의 가벼움과 활발함과 비교할 때 약간의 폭발적인 소리를 내야 한다. 이 곡의 특성은 마디의 마지막 8분음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6번째 단은 그림과 같이 못 갖춘 마디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19.

19번째 곡은 "Largo"에서 "Vivace"로의 변환은 단지 빠른 진행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매우 부드러울 것이다. 즉, 느린 템포에서의 16분음표와 같은 32분음표의 속도는 빠른 템포에서의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속도가 된다 ( 와 ). 그리고 발 박자는 2개로 빨라진 변환은 마지막 11번째 단에서 다시 바뀐다.

20.

이 곡은 점 4분음표의 빠르기는 2번째 단에서의 4분음표와 같아지기 때문에 8분음표와 16분음표는 3/4박자에서 더 느리게 된다. 3째 단에서는 3/4박자가 9/8박자로 다시 바뀐다.

그러나 발로 두드리는 것은 박의 길이가 변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21.

21번 곡에서는 8분음표 단위로 8분음표가 계속되지만 발로 두드리는 것은 각 마디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한다. 3째단 모든 roll은 정확한 갯수가 나타나도록 한다.

22.

22번째 곡을 연습할때에는 4박자로 연주한다. 2번째와 4번째 마디는 한 박자가 2개로 나누어져 있다기 보다는 차라리 3개로 나뉜 것으로 보는 편이 쉽다.(6번째 마디의 첫 2박자처럼)

소리는 그 마디의 마지막 2박자(둘째단)와 크게 다르지 않다. 8번째단 둘째 마디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는 점을 주의하라.

23.

23번 곡 "ABA"라는 표시는 지정된 어느 한 주제의 첫 부분 A와 또 이와는 다르지만 첫 부분과 관계된 비교부분 B, 그리고 똑같진 않더라도 첫 부분과 비슷한 세 번째 부분 A를 포함하는 세 부분으로 나뉜 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A"은 4/4박자의 1-6마디, "B"는 2/4박자의 7-18마디, 그리고 "A"는 4/4박자의 22-27마디와 같다. 스네어 드럼은 음색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자 변화는 각 부분의 주제로 대치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19-21마디는 "B"에서 "A"부분으로 다시 바뀌는 것처럼 연주하고 있으니 주제가 바뀜에 따라서 박자도 음색을 바꿔주는 방법을 사용하라. 마지막 7마디의 coda(종결부)표시는 이 곡의 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독립적인 종결부분)

24.

Sonatina는 가장 긴 구조로 된 음악이다. 24번 곡의 첫 부분은 기본적인 주제의 표시로 시작하여 다른 주제로 마치 다리처럼 연결해 주듯이 두 번째 주제를 이끌어가는 변화된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coda같은 마무리를 쓰거나 혹은 쓰지 않은 형태이다. 이 연습에서는 그 형태를 리듬에 대하여 나누며 센다. 즉, 1 부분의 첫 주제는 1-5마디, 주제의 변화 5-7마디, 두 번째 주제 8-19마디, coda마디 20-25마디까지이고, 2 부분의 첫 주제는 26-29마디, 주제의 변화 30-36마디, 두 번째 주제 37-40마디, coda마디 41-43으로 나뉘어진다.

25.

Song and Trio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중간 부분 또는 "Trio"와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가 반복함으로 구성 되어진다. 이 말은 즉, 첫 번째 주제 1-8마디, 두 번째 주제 9-14마디, 3/4박자는 Trio, 그리고 나머지 16마디는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가 반복된다.

26.

Rondo 형태는 "episodes (에피소드 : 삽입곡)" 또는 "diversion(전환)"이라 불리는 몇개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변화하는 연주인데 episodes 와 diversion는 처음 느낌과는 다르다. 3rd Rondo 형태로 불리는 이 연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 주제 12/8 박자 1-4마디, 두 번째 주제 다른 박자 5-12마디,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13-16마디, 세 번째 부분은 다른 박자로된 주제 17-24마디이고,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서 29-31마디이고, 마지막은 첫 주제로 돌아가고 32-35마디, 그리고 coda (종결부)로 마무리 36-37 마디이다.

27.

27번 곡에 나타난 다음 4가지 연습은 18세기 모음곡과 비슷하다. Allemande는 독일 춤으로서 매우 온화한 4/4박자, 못 갖춘마디이고, 가볍게 달리는 듯한 형태를 자주 사용한다.

28.

쿠랑트는 옛날 프랑스 춤으로서 생동감 있는 3/4또는 3/2박자 이고, 못 갖춘마디로 시작한다. 이 연습에서 시작부분의 액센트는 주제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한다.

29.

사라방드는 점잖고 위엄 있는 춤으로서 스페인에서 매우 대중적인 춤이다. 이것은 느린 3박자로서 보통은 못 갖춘마디가 없고, 리듬이 늘어난 형태를 자주 사용하거나 마디의 2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준다.

30.

모음곡에 항상 포함되는 지그(바로크 시대의 약동적인 무곡)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갖는다.

31.

31번 곡의 주제와 변주는 이렇다. 주제: 처음부터 둘째 단까지, 변주: 1변주 느리게
2변주 왈츠 풍으로 3변주 빠르게 4변주 행진곡 풍으로 5변주 느리고 장중하게 해야 한다.

32

빠른 소나타 형태는 음악에서 가장 긴 3부분 구조이며, 다음과 같다. 도입부분의 서주,
재현부분(첫 주제와 변화하여 2번째 주제를 표현하였고), 발전부 (음색을 중심 변화시켜 주제를
다시 연주), 재현부(원래의 형태로 주제를 다시 표현): 선택 coda 이것은 다시 이렇게도
표현한다. 서곡 1-8 마디, 재현부 9-35마디 (첫 주제 9-16), 변환 17-22마디, 6/8박자의
2번째 주제 23-35마디, 발전부분 36-59마디, 바뀌는 음표(음가)를 사용하여
재현부 60-80마디, 4/4 원래의 속도로 연주, 종결부는 81-86마디이다.

33.

33번 곡은 커다란 차이를 빼고는 마지막 부분과 비슷한 부분으로 시작한다. 당김음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적당한 강세의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붙임줄로서, 이어진 떨어진
roll과 crush roll의 차이이다.

34.

이 곡의 특징은 마디가 변할 때마다 변박자가 나타나는데 이를 시작부분에 표시하였고,
각 마디마다 박자 표시를 하지 않는다. 즉, 한 마디 단위로 3/8과 2/8박자가 지속적으로
변한다.

35.

35번 곡의 연습의 어려움은 32분음표를 읽는 것인데, 비록 빠르기는 매우 느릴지라도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36.

36번은 첫마디 세 번째 박자와 여섯 번째 박자에 있는 flam의 배치는 느낌이 변화 되거나 연주하는데 있어서 느낌이 새로울 것이다. 여섯 번째 단은 음표를 묶어놓은 것으로 보통 이것을 각 음표들의 시작 부분에 가벼운 액센트를 주어야 한다.

37.

이 연습은 Rimsky-Korsakov의 Capericio Espanol에 있는 유명한 드럼 부분의 리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록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마디의 모든 roll은 이어져 있지만, 여섯 번째 마디의 스타카토는 약간 강세를 주어야 한다.

38.

이 연습은 Rimsky-Korsakov의 Scheherazade에 있는 스네어드럼 부분으로 부터 인용한 것으로서 3, 6, 8째 단에서 나타나 있다. 2,3째 단에 표시된 L, R은 리듬을 연주하는 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받아 드릴 수 있고, 종종 Seven Strok roll이 사용되기도 한다.

39.

39번 연습곡의 주제는 처음 4마디에서 말해 주고 있는데, 그 뒤에 더해진 3마디는 흥미를 더하기 위해 별도의 박자를 포함시켰다. 마지막 11번째단 3/16박자 마디 ('코테타"라고 한다.)를 사용한 것은 패턴의 실질적 변화 없이 리듬감을 변화시킨다.

40.

5/8박자 마디에서 발로 두드리는 것은 8분 음표 ($\downarrow\downarrow$ 또는 $\uparrow\uparrow$)의 조합에 따라 한다.

예를 들어 마지막 2마디에 있어서 당김음의 적당한 느낌을 위해서는 발로 두드리는 것을 5/8 $\downarrow\downarrow, \uparrow\uparrow$ 로 해야 한다.

41.

41번 곡의 연습은  와  의 차이점 때문에 매우 정확성이 요구된다. 각 부분은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부드럽게 연주해야 한다.

42.

이 곡에 나타난 32분음표 리듬은 처음의 것만큼 어렵지 않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발을 이용하여, 각 8분음표마다 발박자 치며 연습한다.

43.

이 곡을 연습할 때는 한 마디를 천천히 9Count로 연습하고 익숙해 졌을 때 한 마디를 3 count로 한다.

44.

이 3/8 연습은 다양한 당김음을 사용하였다. 셋 째단 마지막 마디부터 넷 째단까지 각 마디는 바로 앞 마디보다 더 부드럽게 해야 한다.

45.

이 곡의 연습은 하나로 연주해야 하는데, 곡의 첫 마디는 2번째 박자로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악구가 형성 되어야만 한다.

46.

이 곡은 고상함을 위해, 뿐만 아니라 경험을 둡기 위해, 이번 연습은 약식기보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짧은 표시 체제는 타악 악보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실제로 야망있는 타악인들은 이 악기법이 친숙하다. 여기에서 roll해야 하는것은 "*r*"이라고 적었다.

47.

47번 곡의 연습은 변박자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8분음표의 속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큰 소리로 세는 것이다.

48.

이 연습은 마디당 12 count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익숙해 졌을때 4count으로 연습한다. 9,10악절의 셈여림 변화는 약간 과장되게 한다.

49.

49번 곡의 연습은 계속해서 8분음표를 주의 깊게 세는 것이 중요하다.

50.

지금까지 진행 되어진 음악적인 마침으로서, Grand Finale(대망의 막) 을 내린다.